

전남 묵은 쌀 쌓여간다

올해 들어 쌀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재고량은 급증해 전남 지역 단위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단경기(端境期)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는 버 재고처리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다.

◆재고량 전년보다 44.6% 늘어= 25일 농협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전남지역 버 판매량은 11만7천t으로, 전년 동기 14만t보다 19.6% 줄어 들었다.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재고량은 전년 15만t보다 무려 44.6% 증가한 21만7천t에 달했다. 21만7천t의 재고량 가운데 농협 RPC는 11만7천t, 민간 RPC는 10만t으로 집계됐다. 농협 RPC 중에는 보

소비 줄어 전년보다 재고 45% 급증 홍보·판촉 기금 조성 등 대책 시급

성통합 RPC 8천800t, 무안 일로 RPC 4천300t, 나주 마한 RPC 4천t, 순천 농협 RPC 3천800t으로 재고량이 많았다. 또 민간 RPC의 경우 고흥 팔영, 고흥 녹동, 강진 군동, 강진 한들, 해남 문내, 해남 산이 RPC 등이 3천t 이상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쌀 소비량 급감 추세= 패스트푸드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범람하면서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93.6kg에서 2007년 76.9kg, 2008

2천760원에 거래됐다.

◆대책은 없나=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RPC들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나주 A농협 RPC 관계자는 “40kg 조곡기준으로 지난해 버 매입가격이 전년보다 4천~5천원 상승한 5만3천원에 달했으나, 판매가는 되려 감소해 경영이 어렵다”면서 “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라비바 부담마저 커질수록 판매가 없어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오는 9월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쌀의 영향과 기능성에 대한 홍보, 쌀 판촉 기금 조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ee@



강진 평리 들녘 마늘수확 한창

25일 강진군 작천면 평리 들녘에서 마늘수확이 한창이다. 주민들은 마늘을 수확한 뒤 물을 채워 모래기를 할 계획이다. <강진군 제공>

여수해경 바다사랑그림대회 금상에 양지초 한지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이 주최한 바다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작인 금상에 여수 양지초등학교 한지원의 ‘아름다운 바다’가 선정됐다.

은상에는 금단지 어린이집 정지원(바다속 여행), 여수 한려초 박범준(바다가 좋아요), 여수 한려초 주수원(바다지킴이 해양경찰)이 각각 선정됐다. 또 ‘우리바다를 지키자’를 그린 여도초등학교 오지민 등 9명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여수해경 강당에서 열린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나눔장터 수익금 복지재단 기부 광양제철-동광양농협

광양제철소 하이밀부 직원과 가족 100여 명은 동광양농협 하나로 마트와 함께 지난 23~24일 광양시 중앙동 하나로마트 앞에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광양제철소 하이밀부 직원들과 동광양농협 직원들이 바자회 행사를 후원을 위해 수집한 의류를 비롯해 믹서기·선풍기 등 소형 가전제품, 어린이용 자전거와 화음풍, 양파·감자·마늘 등 광양산 농산물 등을 갖추고 나눔장터를 열었다.

하나로마트 인근에 사는 이은희 주부(48)는 “배우고 싶어도 가난으로 배우지 못하고 점심을 거르는 어린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소식에 감자를 샀다”며 매장 봉사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pyj4079@



동광양농협 정안기(42)씨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바자회 행사에 광양제철소 하이밀부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을 초청, 24일 오후 4~5시에 팬 사인회를 열고 선착순 300명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새겨진 노란 티셔츠를 선물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pyj4079@

도요물떼새 네트워크 사무국 신안 유치 추진

郡, 종네트워크 회의 및 교육 실시

철새 메카를 지향하는 신안군이 ‘도요물떼새 네트워크 한국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학계, 연구소, NGO 단체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요물떼새 종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압해도 대천리 일대에서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을 하는 전국 NGO 2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서 도요물떼새의 이동 및 생태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요물떼새 조사를 일원화하고 교육 등을 담당할 한국사무국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신안군의 사무국 유치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요물떼새는 봄과 가을철에 우리나라 서해안 등의 갯벌을 통과하는 조류로 최근 갯벌 매립 등, 서식지 감소로 인하여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목포 15곳 ‘경관도로’ 새 단장

고하로·백년로 등 지정... 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

목포시가 기존 도로를 새롭게 단장해 경관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머물다 가고 싶은 해양관광 중심도시의 기반 구축에 나선다.

목포시는 현재 주요 간선도로면 15개소를 ‘경관도로’로 지정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주요 간선도로면 6개소(총연장 26km)에 대해 고하로 중앙분리대 설치, 경관가로등 시설, 백년로 중앙분리대 설치, 영산강하구로 중앙분리대 및 도로주변 조

경수 식재, 방음벽 철거사업을 추진했다.

또 최근 중앙로 원도심 기업은행~유달산 우체국간 도로확장(길이 280m, 폭 15m)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포했으며, 주변경관을 위해 벽천(壁川)공사도 이달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올해 고하로, 백년로, 중앙로, 영산강 하구로 등 9개소를 경관도로로 추가 지정하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기타 시내 주요 간선도로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한 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관리하고,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선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15개소 주요 간선도로면 중앙분리대에 경관 가로등을 설치, 삼학도 35호 광장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하수관계 BTL사업이 끝나면 도로포장 계획과 중앙로(구)검문소~과화대학교간 중앙분리대 설치, 영화맨션 노후 방음벽 교체, 가로면 조경수 식재, 도로주변 공원조성, 노후 도로 시설물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농업인 정보화교육 영농활동 도움” 82%

전남 농기원 설문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교육에 대해 교육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는 80% 이상, 영농활동에도 82%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설문항목은 교육 만족도, 영농활동 도움 여부, 교과목 편성, 교재내용, 교

육시설 등 15개였다.

또한 교육생의 성(性)비는 여자 53%, 남자 47%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분포는 50대 이상 27%, 40대 42%, 40대 이하가 31%로 정보화 교육은 대체로 젊은층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은 정보화시대 새로운 유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반, 전자상거래반 등 2개 반을 개설해 3회에 걸쳐서 총 9일간(54시간),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6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항 저지대·도로 26~27일 침수 우려

목포항 부근 저지대와 도로가 조위 상승으로 바닷물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목포시는 26~27일에 바닷물 수위가 4.96m까지 높아져 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로 말미암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차 금지를 당부하는 한편 각종 위험 시설물과 배수 펌프장을 사전 점검하고 침수 예상 지역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주)국민법률경제대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공인중개사 : 김행숙
경매분석사 : 김행숙
062)351-8240
H.P 010-7203-1100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안구	신승동	112	1억3천500원	9천400원
	비바동	79	6천600원	4천600원
	운남동	85	6천300원	4천400원
	소촌동	79	6천	4천200원
	철계동	112	1억2천800원	8천900원
	철대동	95	9천800원	6천800원
	송림동	99	8천	5천900원
	도산동	94	5천900원	4천100원
	주월동	105	1억2천800원	8천900원
	금성동	108	6천300원	1억500원
남구	금호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리안	105	1억1천	7천200원
	리안동	85	7천	4천900원
	평지	89	6천	4천200원
	철산동	112	1억1천	7천700원
	진원동	82	6천	6천
	대우동	102	3천500원	9천500원
	해안동	102	8천400원	8천400원
	해안동	102	8천400원	8천400원
	해안동	102	8천400원	8천400원
북구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대우동	105	1억3천500원	7천200원

경매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